

청소년의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 수준이 집단따돌림 유형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Family Function, Impulsive Behavior and Stress on Bullying Types of Adolescents

이혜순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Hea-Shoon Lee(lhs7878@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가 집단따돌림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중·고등학생 627명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rogram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및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따돌림 유형(가해 및 피해)은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기능의 하부요인에서 정서적 반응성, 충동성의 하부영역에서 무계획 충동성, 스트레스의 하부요인에서 친구관련 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에서 음주경험(있음), 부모 우울문제 경험(있음)로 확인되었으며, 34.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집단따돌림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기능의 하부요인에서 의사소통, 충동성의 하부영역에서 운동 충동성, 스트레스의 하부요인에서 친구관련 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남학생), 학년(중학생)으로 확인되었으며, 30.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유형(가해 및 피해)에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과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유형에 따른 중재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중심어 : | 청소년 | 집단따돌림 | 가족기능 | 충동성 | 스트레스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dolescent's family function, impulsive behavior, stress on the bullying types.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627 adolescent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18.0. Results: The bullying types (injurer and victim) correlates with family function, impulsive behavior and stres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emotional reactivity, non-planning impulsiveness, friends related stress, experience of drinking (yes), experience of parent depression problem (yes), explained 34.1% of the total variance in bully injurer.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communication, motor impulsiveness, friends related stress, gender (male), grade (junior high school), explained 30.9% of the total variance in bully victim.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in provid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bullying, in preventing bullying and in developing an intervention program.

■ keyword : | Adolescent | Bullying | Family Function | Impulsive Behavior | Stress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친구관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과 가치관을 습득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 시기로[1], 특정 학생을 따돌리고 괴롭히며 폭행까지 가하는 친구관계 문제인 집단따돌림[2]은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집단따돌림 피해로 인해 부정적 자아개념[3], 우울, 불안[2], 무력감, 대인관계 두려움 나아가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4]. 그러나 집단따돌림 현상은 다른 학교폭력과 연계되어 복합적인 양상으로 변화하여 심각해지고 있다[5].

집단따돌림 가해행위는 행위자의 내적 분노, 욕구좌절로 인한 반항심과 적개심, 스트레스와 불만 표출행위로 친구에 대한 극단적인 모욕 등과 같은 언어적, 신체적 공격행동으로 나타난다[6]. 집단따돌림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피해와 가해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며[7], 남학생의 30%가 피해와 가해의 동시성향을 나타내었으며, 피해경험만을 가진 학생(14.7%)보다 2배에 달하고 있어, 집단따돌림의 피해와 가해가 악순환이 되고 있다[8].

가족기능은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9], 부모관계 만족도가 낮은 경우 집단 따돌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는 사회적 학습 모델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기술을 배워 청소년의 사회적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1]. 가족기능의 상실은 집단따돌림의 위험요인으로 가족 구성형태가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 집단 따돌림의 위험이 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보다 6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가족 구성원에 따라 가족기능에 차이가 있고[12], 가족기능 상실은 심리적 격동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13], 가족기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충동성은 적절한 자기통제가 결여된 상태[15]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집단따돌림, 중독, 비행, 학교폭력 등)은

충동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충동성이 높은 경우 행동의 절제가 어렵고[17], 주의집중 및 계획능력이 부족하며 공격적인 대인관계로 인하여 사회적응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미숙하며 이로 인해 충동성은 집단따돌림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18]. 정서적 반응성과 같은 가족기능은 충동성에 영향 요인으로[19], 올바른 가족기능 수행은 청소년의 충동성 조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충동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으며[20], 청소년기에는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오는 좌절감과 열등감, 부모의 기대 등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주변의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집단따돌림 가해의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되며 또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자가 된 청소년들을 집단따돌림 피해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 새로운 집단따돌림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21].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집단따돌림의 위험은 1.14배, 가족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집단따돌림의 위험은 1.0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 집단따돌림 경험군은 친구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아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22],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 일수록 환경 적응력이 높아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집단따돌림은 성인이 된 후의 인격성장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23]에서,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유형(가해 및 피해), 환경적 요인으로 가족기능, 성격적 요인인 충동성, 심리적 요인인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집단따돌림 가해와 집단따돌림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특히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의 어떤 하부요인이 집단따돌림 유형 더 영향 요인인지 파악함으로써, 집단따돌림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유형에 따른 중재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유형,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 유형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유형,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집단따돌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편의 표집된 H지역의 중학교(1, 2, 3학년 각 5개 학급으로 총 15개 학급) 1개교와 인문계 고등학교(1, 2, 3학년 각 5개 학급으로 총 15개 학급) 1개교, 총 2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였다. 대상자 수는 유의수준(α) .05, 회귀분석의 작은 효과크기(small effect size) .02, 검정력($1-\beta$) .80으로 Cohen[24]의 표본크기 결정방법에 근거하여 산정한 결과 556명 이상의 대상자가 요구되었으며,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수는 627명이었다. 설문지는 연구 참여를 동의한 680명의 학생에게 배부되었으며, 무응답이 많은 53부를 제외한 627부(92.2%)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교수 1인, 교육학과 교수 1인, 중학교 교사 1인, 고등학교 교사 1인에 의해 청소년에게 적합한지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7문항(성별, 학년, 본인 흡

연경험 유무, 본인 음주경험 유무, 부모흡연 여부, 부모 음주문제 경험 유무, 부모 우울문제 경험 유무)로 구성하였다.

3.1 집단따돌림 유형(가해 및 피해)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 측정은 최은숙과 채준호[2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영역 총 30문항으로 가해항목 15문항, 피해항목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해항목과 피해항목의 하부요인으로 각각 소외형(5문항), 언어형(5문항), 신체형(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최근 한 학기 동안 해당 내용이 '전혀 없었다.' 1점, '한 달에 1-2번 있었다.' 2점, '한 달에 2-3회 있었다.' 3점, '1주일에 1회 있었다.' 4점, '1주일에 여러 번 있었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최은숙, 채준호[25]의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가해는 Cronbach's α =.80, 집단따돌림 피해는 Cronbach's α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가해는 Cronbach's α =.93, 집단따돌림 피해는 Cronbach's α =.95이었다.

3.2 가족기능

가족기능 측정은 Byles, Byrne, Boyle과 Offord[26]의 맥매스터 가족기능모형(The McMaster Model of Family Assessment Device, FAD)을 김정은[27]이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영역 총 17문항으로 정서적 반응성(4문항), 적극적 가족문제 해결(5문항), 의사소통(4문항), 역할인식과 정서적지지(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2점, '그렇다' 3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김정은[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8이었다.

3.3 충동성 척도

충동성 측정은 Barratt과 White[28]의 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를 기초로 이현수[29]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영역, 총 23문항으로 인지 충동성(6문항), 운동 충동성(8문항), 무계획 충동성(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이현수[2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0$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2$ 이었다.

3.4 스트레스 척도

스트레스 측정은 Felner, Ginter와 Primavera[30]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 DHQ (Daily Hassles Questionnaire)를 기초로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된 이경주, 신호식, 김효심[3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영역, 총 27개 문항으로 가족관련(7문항), 친구관련(6문항), 학업관련(6문항), 교사관련(5문항), 신체관련(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이경주, 신호식, 김효심[3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7$ 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12월 3일~28일까지 H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목적 및 방법을 설명한 후 조사하였다. 즉, 연구과정, 설문내용, 설문 작성 시 유의사항, 대상자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 등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설문 응답 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한 학생에 한해서면동의를 받았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였다.

- 1)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유형,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 유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유형,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6. 제한점

설문조사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함으로써 윤리적인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 수준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가해 수준은 평균 1.54점이며, 하부요인으로 소외형 가해(1.63점), 집단따돌림 피해 수준은 평균 1.35점이며, 하부요인으로 언어형 피해(1.45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은 평균 2.30점이며, 하부요인으로 역할인식과 정서적지지(2.35점), 충동성은 평균 2.31점이며, 하부요인으로 인지 충동성(2.61점), 스트레스는 평균 2.41점이며, 하부요인으로 학업관련 스트레스(2.60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

집단따돌림 가해는 본인 흡연경험 유무($t=2.319$, $p=.021$), 본인 음주경험 유무($t=4.920$, $p<.001$), 부모 흡연여부($t=2.641$, $p=.008$), 부모 음주문제 경험유무($t=2.271$, $p=.023$), 부모 우울문제 경험유무($t=4.080$,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 수준 (N=627)

| 변수 | Mean±SD | 취득 점수 | |
|-------------|-----------|-------|------|
| | | Min | Max |
| 집단따돌림 가해 | 1.54±0.63 | 1 | 5 |
| 소외형 | 1.63±0.69 | 1 | 5 |
| 언어형 | 1.61±0.80 | 1 | 5 |
| 신체형 | 1.36±0.66 | 1 | 5 |
| 집단따돌림 피해 | 1.35±0.58 | 1 | 5 |
| 소외형 | 1.34±0.61 | 1 | 5 |
| 언어형 | 1.45±0.71 | 1 | 5 |
| 신체형 | 1.27±0.62 | 1 | 5 |
| 가족기능 | 2.30±0.61 | 1 | 3 |
| 정서적 반응성 | 2.31±0.65 | 1 | 3 |
| 적극적 가족문제해결 | 2.19±0.64 | 1 | 3 |
| 의사소통 | 2.25±0.64 | 1 | 3 |
| 역할인식과 정서적지지 | 2.35±0.64 | 1 | 3 |
| 충동성 | 2.31±0.31 | 1.13 | 3.48 |
| 인지 충동성 | 2.61±0.50 | 1 | 4 |
| 운동 충동성 | 2.29±0.37 | 1 | 3.63 |
| 무계획 충동성 | 2.13±0.38 | 1 | 3.33 |
| 스트레스 | 2.41±1.03 | 1 | 5 |
| 부모관련 스트레스 | 2.49±1.16 | 1 | 5 |
| 친구관련 스트레스 | 2.21±1.01 | 1 | 5 |
| 학업관련 스트레스 | 2.60±1.23 | 1 | 5 |
| 교사관련 스트레스 | 2.39±1.28 | 1 | 5 |
| 신체관련 스트레스 | 2.15±1.10 | 1 | 5 |

집단따돌림 피해는 성별($t=2.108, p=.035$), 학년($t=2.132, p=.033$), 본인 흡연경험 유무($t=2.055, p=.041$), 본인 음주경험 유무($t=3.036, p=.002$), 부모 흡연여부($t=2.275, p=.022$), 부모 음주문제 경험유무($t=1.983, p=.048$), 부모 우울문제 경험유무($t=3.652, p<.001$)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

(N=627)

| 변수 | 범주 | n (%) | 집단따돌림 가해 | | | 집단따돌림 피해 | | |
|---------------|------|------------|-----------|-------|-------|-----------|-------|-------|
| | | | M±SD | t | p | M±SD | t | p |
| 성별 | 남 | 340 (54.2) | 1.54±0.60 | 0.029 | .769 | 1.40±0.61 | 2.108 | .035 |
| | 여 | 287 (45.8) | 1.53±0.65 | | | 1.30±0.55 | | |
| 학년 | 중학생 | 303 (48.3) | 1.57±0.67 | 1.084 | .279 | 1.41±0.63 | 2.132 | .033 |
| | 고등학생 | 324 (51.7) | 1.51±0.59 | | | 1.31±0.50 | | |
| 본인 흡연 경험 유무 | Yes | 128 (20.4) | 1.65±0.73 | 2.319 | .021 | 1.41±0.65 | 2.055 | .041 |
| | No | 499 (79.6) | 1.51±0.60 | | | 1.30±0.57 | | |
| 본인 음주 경험 유무 | Yes | 285 (45.5) | 1.67±0.72 | 4.920 | <.001 | 1.43±0.65 | 3.036 | .002 |
| | No | 342 (54.5) | 1.43±0.65 | | | 1.29±0.48 | | |
| 부모 흡연여부 | Yes | 381 (60.8) | 1.59±0.67 | 2.641 | .008 | 1.37±0.61 | 2.275 | .022 |
| | No | 246 (39.2) | 1.45±0.54 | | | 1.28±0.51 | | |
| 부모 음주문제 경험 유무 | Yes | 141 (22.5) | 1.64±0.78 | 2.271 | .023 | 1.44±0.65 | 1.983 | .048 |
| | No | 486 (77.5) | 1.51±0.58 | | | 1.33±0.56 | | |
| 부모 우울문제 경험 유무 | Yes | 51 (8.1) | 1.88±0.94 | 4.080 | <.001 | 1.64±0.77 | 3.652 | <.001 |
| | No | 576 (91.9) | 1.51±0.58 | | | 1.33±0.56 | | |

3.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가해는 가족기능($r=-.099, p=.006$)과 역 상관관계가 있었고, 충동성($r=.185, p<.001$), 스트레스($r=.350, p<.001$)와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피해는 가족기능($r=-.141, p<.001$)과 역 상관관계가 있었고, 충동성($r=.169, p<.001$), 스트레스($r=.175, p<.001$)와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3].

4.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에서 집단따돌림 가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본인 흡연경험 유무, 본인 음주경험 유무, 부모 흡연여부, 부모 음주문제 경험 유무, 부모 우울문제 경험 유무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 중 명목척도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69-.96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검정을 통해 잔차분석 결과 1.716으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가해에 영

표 3.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N= 627)

| | 집단따돌림 가해 | | | | 가족기능 | 충동성 | 스트레스 |
|----------|--------------|--------------|--------------|-------------|--------------|------------|------|
| | 총점 | 소외형 | 언어형 | 신체형 | | | |
| | r (p) | | | | | | |
| 집단따돌림 가해 | 1 | | | | | | |
| 소외형 | .840(<.001) | 1 | | | | | |
| 언어형 | .918(<.001) | .645(<.001) | 1 | | | | |
| 신체형 | .875(<.001) | .578(<.001) | .746(<.001) | 1 | | | |
| 가족기능 | -.099(.006) | -.088 (.014) | -.084(.040) | -.111(.005) | 1 | | |
| 충동성 | .185(<.001) | .155(<.001) | .169(<.001) | .162(<.001) | -.241(<.001) | 1 | |
| 스트레스 | .350(<.001) | .420(<.001) | .301(<.001) | .199(<.001) | -.113 (.002) | .117(.003) | 1 |
| | 집단따돌림 피해 | | | | | | |
| | 총점 | 소외형 | 언어형 | 신체형 | 가족기능 | 충동성 | 스트레스 |
| | r (p) | | | | | | |
| 집단따돌림 피해 | 1 | | | | | | |
| 소외형 | .910(<.001) | 1 | | | | | |
| 언어형 | .909(<.001) | .728(<.001) | 1 | | | | |
| 신체형 | .907(<.001) | .768(<.001) | .720(<.001) | 1 | | | |
| 가족기능 | -.141(<.001) | -.139(<.001) | -.116(<.001) | -.133(.001) | 1 | | |
| 충동성 | .169(<.001) | .140(<.001) | .130(.001) | .194(<.001) | -.241(<.001) | 1 | |
| 스트레스 | .175(<.001) | .142(<.001) | .235(<.001) | .086(.031) | -.113 (.002) | .117(.003) | 1 |

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도 .68이상인 설명변수는 없어 독립변수 간 서로 독립적이며, 잔차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분포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6.991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4.1%였다. 집단따돌림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기능의 하부요인에서 정서적 반응성(β -.198, t=-5.278, p<.001), 충동성의 하부영역에서 무계획 충동성(β -.127, t=3.485, p=.001), 스트레스의 하부요인에서 친구관련 스트레스(β -.313, t=8.517, p<.001), 일반적 특성에서 본인 음주경험(있음)(β -.121, t=3.277, p=.001), 부모 우울문제 경험(있음)(β -.100, t=2.715, p=.007)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에서 집단따돌림 피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학년, 본인 흡연경험 유무, 본인 음주경험 유무, 부모 흡연여부, 부모 음주문제 경험유무, 부모 우울문제 경험유무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 중 명목척도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54-.97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검정을 통해 잔차분석 결과 1.891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간에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도 .70이상인 설명변수는 없어 독립변수 간 서로 독립적이며, 잔차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분포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8.30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0.9%였다. 집단따돌림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기능의 하부요인에서 의사소통(β -.101, t=-2.785, p=.006), 충동성의 하부영역에서 운동 충동성(β -.126, t=3.455, p=.001), 스트레스의 하부요인에서 친구관련 스트레스(β -.210, t=5.641, p<.001),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남학생)(β -.126, t=3.434, p=.001), 학년(중학생)(β -.093, t=2.551, p=.001)로 나타났다[표 4].

표 4. 집단따돌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627)

| 변수 | 집단따돌림 가해 | | | 집단따돌림 피해 | | |
|--------------------|----------|--------|-------|----------|--------|-------|
| | β | t | p | β | t | p |
| 가족기능 | | | | | | |
| 정서적반응성 | -.198 | -5.278 | <.001 | | | |
| 의사소통 | | | | -.101 | -2.785 | .006 |
| 충동성 | | | | | | |
| 운동 충동성 | | | | .126 | 3.455 | .001 |
| 무계획 충동성 | .127 | 3.485 | .001 | | | |
| 스트레스 | | | | | | |
| 친구관련 스트레스 | .313 | 8.517 | <.001 | .210 | 5.641 | <.001 |
| 성별(남학생) | | | | .126 | 3.434 | .001 |
| 학년(중학생) | | | | .093 | 2.551 | .011 |
| 본인 음주 경험(있음) | .121 | 3.277 | .001 | | | |
| 부모 우울문제 경험(있음) | .100 | 2.715 | .007 | | | |
| F (p) | | 16.991 | <.001 | | 18.304 | <.001 |
| Adj R ² | | .341 | | | .309 |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가해는 소외형, 집단따돌림 피해는 언어형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형은 은근하게 무리를 지어 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집단따돌림 가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언어형은 놀림, 조롱 등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집단따돌림 피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집단따돌림의 경향을 분석한 윤영미[3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가해와 피해는 가족기능과 역 상관관계가 있고, 충동성, 스트레스와는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은 가족 구성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33], 부적절한 가정환경은 집단따돌림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어[34],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부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35] 연구와도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집단따돌림 가해와 피해는 충동성과 상관관계가 있고 충동성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36],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충동적 성향이 강할수록 자

기조절과 통제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 친구에게 폭력과 같은 가해를 할 가능성이 높고[37],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집단따돌림 피해를 당할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8].

집단따돌림 가해와 피해는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38],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족기능 상실은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며[27], 스트레스는 집단따돌림과 상관관계가 있어, 가족기능 상실은 집단따돌림에 영향요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청소년기 친구와의 관계는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3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집단따돌림 가해와 피해를 모두 설명하고 있어, 청소년기는 친구관계를 통해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기술 등 사회적인 기술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로 친구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집단따돌림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40]. 한편 조아미와 조승희[21]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집단따돌림 가해와 피해 모두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가해자의 경우 시간이 경과해도 스트레스가 감소되지 않는 반면 피해자의 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고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친구관련 스트레스 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며, 집단따돌림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기능의 하부요인에서 정서적 반응성, 충동성의 하부영역에서 무계획 충동성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집단따돌림 가해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하고[41],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 간의 밀착 정도가 높다[42]. 가족응집성은 스트레스에 14%의 영향을 미치며[14], 가족의 특성[13]에 따라 스트레스를 증진시킬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다.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부적응[43][44] 및 집단따돌림 가해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21]으로 이어지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어, 가족기능의 하위변인에서 정서적 반응이 집단따돌림 가해를 유의하게 예측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무계획 충동성은 집단따돌림 가해집단이 피해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무계획 충동성은 집단따돌림 가해에 영향요인이며, 행동통제 결함과 반사회적 동조행동을 포함하여 19.5%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내[36]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단따돌림 가해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8], 무계획 충동성이 높아 자제력이 부족하고 반항적이어서 폭력과 같은 가해행위를 통해 쾌감과 우월감을 경험하기 때문에[45], 집단따돌림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기능 중 부모의 우울 경험[46]과 학생의 음주경험[47]은 집단따돌림과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증진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47]는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기능의 하부요인에서 의사소통, 충동성의 하부영역에서 운동 충동성으로 나타났다.

가족적응성이 높은 경우 청소년기에 급격히 변화하는 정서적 문제를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48]. 그러나 의사소통을 통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부족한 상태이며[27],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부제로 인해 집단따돌림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부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꾸중만 들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 말하기가 어려워, 가해자로부터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49]. 따라서 가정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켜 긍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가족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운동 충동성은 자제력이 약하며 생각 없이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행동제지 능력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50], 집단따돌림 피해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내[8],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집단따돌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적

절하게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51]. 운동 충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행동하기 전 어떤 행동을 할지 먼저 말로 표현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 하여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자기 행동조직법과 같은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집단따돌림 피해 요인으로 성별(남학생[21])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남학생이 집단따돌림 피해에 대한 설명력이 있다는 것은 소외형에 비해 충동적인 폭력에 더 가까운 유형으로 남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욕설, 헐박 등을 당하게 되는 언어형이 집단따돌림 피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이상균[37]의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뿐 만 아니라 가해경험도 남학생(33.0%)이 여학생(25.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수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소완섭[52]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집단따돌림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이 집단따돌림 피해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성숙으로 집단따돌림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점차적으로 발달시키고 좀 더 강인해 짐으로써 집단따돌림을 덜 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유형(가해 및 피해)에 가족기능, 충동성, 스트레스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과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유형에 따른 중재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안한다.

참고 문헌

- [1] 권중돈, 김동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05.

- [2] 김혜원,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에 따른 남녀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 학교인식 및 학교적응에 대한 구조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2호, pp.173-198, 2011.
- [3] J. Juvonen and S. Graham,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New York: Guilford Press, 2001.
- [4] Y. S. Kim, Y. J. Koh, and B. Leventhal, “School bullying and suicidal risk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Pediatrics*, Vol.115, pp.357-363, 2005.
- [5] 구난희, “한국의 집단따돌림 구조와 양상 변화에 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7권, 제3호, pp.1-23, 2010.
- [6] 조성호,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의 허와 실,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모색 심포지엄”, *한국심리학회 발표논문집*, 1999.
- [7] 이경희, 고재홍, “유형별 초등학생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의 비교: 사회관계모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5권, 제1호, pp.23-45, 2006.
- [8] 이경숙, *집단따돌림과 충동성 및 자기개념과의 관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9] 박재산, 이미순, 문재우, “가족의 기능적 결손 정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4권, 제2호, pp.199-209, 2011.
- [10] 이혜순,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및 학교생활 적응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제17권, 제4호, pp.450-458, 2010.
- [11] N. van der Aa, D. I. Boomsma, I. Rebollo-Mesa, J. J. Hudziak, and M. Bartels, “Moderation of genetic factors by parental divorce in adolescents’ evaluations of family functioning and subjective wellbeing,” *Twin Research and Human Genetics : the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win Studies*, Vol.13, pp.143-162, 2010.
- [12] M. Helsen, W. Vollebergh, and W. Meeus,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9, pp.319-335, 2000.
- [13] 한지선, *가족기능 중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기능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14] 박미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사회적 고립감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15] M. R. Bruchinal, J. E. Roberts, S. A. Zeisel, and S. J. Rowley, “Soci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frican America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Dev Psychol*, Vol.44, pp.286-292, 2008.
- [16] 김종수, “범죄청소년의 성격차원 성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0호, pp.268-277, 2008.
- [17] S. C. Cho, Y. C. Hong, J. W. Kim, S. Park, and M. H. Park, “Association between urine cotinine levels, continuous performance test variables, an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learning disability symptoms in school-aged children,” *Psychol Med*, Vol.43, No.1, pp.209-219, 2013.
- [18] 이은영,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충동성과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의 관계: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19] 이혜순, 옥지원,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우울이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제19권, 제3호, pp.374-382, 2012.
- [20] 권오숙,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21] 조아미, 조승희, “집단따돌림의 발달적 변화와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청소년시설행경*, 제5권, 제3호, pp.37-48, 2007.
- [22] K. Rigby,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in

- school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Adolescence*, Vol.23, pp.57-68, 2000.
- [23] S. L. Penning, A. Bhagwanjee, and K. Govender, "Bullying boys: the traumatic effects of bullying in male adolescent learner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Vol.22, pp.131-143, 2010.
- [24]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2nd ed.)*,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
- [25] 최은숙, 채준호,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인간이해*, 제21권, pp.109-136, 2000.
- [26] J. Byles, C. Byrne, M. H. Boyle, and D. R. Offord, "Ontario child health stud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general functioning subscale of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Family Process*, Vol.27, pp.97-104, 1988.
- [27] 김정은, *가족기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과 소년원생 비교를 중심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28] E. S. Barratt and R. White, "Impulsiveness and anxiety related on medical students performance and attitudes," *J Med Educ*, Vol.44, pp.604-607, 1969.
- [29] 이현수, *충동성 측정 가이드*, 서울: 한국가이던스, 1992.
- [30] R. D. Felner, M. Ginter, and J. Primavera, "Primary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s: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al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0, pp.277-290, 1982.
- [31] 이경주, 신효식, 김효심,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제4호, pp.29-39, 1998.
- [32] 윤영미, "초,중,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향분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1권, 제2호, pp.230-240, 2007.
- [33] M. M. Friedman, *Family nursing theory and assessment*. Norwalk, Conn:Appleton-Century-Crofts, 1986.
- [34] 김창근, 임계령,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제38권, pp.173-198, 2010.
- [35] 장미향, 성한기,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제1호, pp.77-87, 2007.
- [36] 류미경, *초등학생 집단따돌림의 유형과 동조성 및 충동성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37] 이상균,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애 체계적 영향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제19권, pp.141-170, 2005.
- [38] 임현숙, *중학생의 집단따돌림과 스트레스 수준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39] 권중돈, 김동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학지사, 2005.
- [40] M. Helsen, W. Vollebergh, and W. Mees,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9, No.3, pp.319-335, 2000.
- [41] 김선애, "가족기능의 상실과 집단따돌림의 가해 피해와의 관계", *지성과 창조*, 제1권, 제10호, pp.221-244, 2007.
- [42] 정순복, 김수진, "일 도시 중학생의 가족기능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0권, 제3호, pp.352-367, 2001.
- [43] T. A. Wills, J. M. Sandy, A. M. Yaeger, S. D. Cleary, and O. Shinar, "Coping Dimensions, Life Stress,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A Latent Growth Analysis," *J Abnorm Psychol*,

Vol.110, No.2, pp.309-323, 2001.

- [44] L. Xianchen, "Cigarette Smoking, Life Stress, and Behavioral Problems in Chinese Adolescents," J Adolesc Health, Vol.33, pp.189-192, 2003.
- [45] 고성혜, 전명기, 박창남, 이희길, *청소년 문제 행동 이해와 지도, 연구보고서(97-16)*,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 [46] S. N. Georgiou, "Bullying and victimization at school: the role of mother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8, No.1, pp.109-125, 2008.
- [47] 김재엽, 이근영,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2호, pp.53-74, 2010.
- [48] 박재산, 이미순, 문재우, "가족의 기능적 결손 정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4권, 제2호, pp.199-209, 2011.
- [49] 김예식, '청소년 일탈행위 상담', *교육교회*, p.82, 1994.
- [50] 신연섭,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공격성이 대학생의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51] 이해순, 옥지원, "청소년의 충동성, 자아존중감, 우울수준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438-446, 2012.
- [52] 소완섭, *청소년 집단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연구 : 조치원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저 자 소 개

이혜순(Hea-Shoon Lee)

정회원



- 1988년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학사)
 - 1996년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07년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박사)
 - 2013년 ~ 현재 :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청소년, 스트레스, 학교생활 적응, 자아존중감